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소홀 가축농가에 사육제한 검토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8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가축의 차단방역에 소홀해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수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구제역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최근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검토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활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8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일부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다소 느슨해진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도 가축의 질병 발생을 늦게 신고하면 살처분을 해도 보상금을 시가의 40~60% 수준으로 적게 준다. 구제역의 경우 수의사나 가축 소유자 등이 구제역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방역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축·사람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등 전염성이 강한 악성 가축질병에 감염됐을 때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축산물의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산업 전체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사육 농가는 반발할 수 있어 생산자

단체, 전문가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사육을 하려면 일정 기간 전문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을 일종의 면허제로 전환하는 셈"이라며 "전염병 예방뿐 아니라 환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동물의 건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도 가축 사육농가의 소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감염 대상이지만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슴, 염소 등으로 등록제를 확대해 모든 가축 사육업에 등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돼지·닭·오리 사육업만 등록 대상이다.

HACCP 신청 수수료 조정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원가 등을 감안, 지정 등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8일자로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보관업·운반업·집유업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35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며,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에 대한 정기심사 수수료 17만원, 지정변경 10만원이다.

〈표 1〉 HACCP 수수료 조정 내용 (단위 : 천원)

대상업종	지정 및 연장심사			정기 검사	지정 변경	
	서류 심사	현장 검사	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기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210	490	700	350	100	
식육판매업	대	210	250	460	230	100
	소	210	140	350	170	100
가축사육업 (소, 돼지, 닭, 오리)	210	120	330	170	100	

통계청

육계, 한·육우 사육수 감소

젖소와 돼지사육수는 늘어난 반면 한·육우와 육계 사육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젖소는 44만5천마리로 지난해 3/4분기보다 7천마리(1.6%) 증가했다.

젖소 수는 지난 2002년 원유생산조절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우유 가격 호조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약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돼지도 가격 호조가 지속되고 사료가격 안정 등에 따라 지난해 3/4분기에 비해 20만4천마리(2.2%) 늘어난 9백58만5천마리로 집계되며, 지난 2007년 하반기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산란계도 6천2백96만7천마리로 전분기대비 96만9천마리(1.6%) 증가했다.

반면 육계는 6천7백19만4천마리로 전분기보다

92만9천마리(1.4%) 감소했다.

한·육우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지난해 3/4분기에 비해 6천마리(0.2%) 줄어든 2백63만5천마리를 기록했지만 감소폭은 미미했다.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5백73만원(600kg, 수컷 기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IE 뉴캐슬병 국제표준실험실 지위 신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2013년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표준실험실 보유부문에서 'OECD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작년 소 브루셀라병 OIE 국제표준실험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10년 뉴캐슬병, 2011년 사슴만성소모성질병, 2012년 광견병, 2013년 항생제 내성균의 순으로 매년 1개씩 총 5개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실험실 지위 인정을 획득하여 OIE 국제표준실험실 보유부문에서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OECD 10위권 내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OIE 국제표준실험실 보유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OIE 표준실험실 지위 획득을 신청한 '뉴캐슬병'은 양계산업의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175개 OIE 회원국 중 선진 5개국만이 국제표준실험실 지위를 획득한 분야이다.

검역원은 지난 1월 4일 IIE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1월말 또는 2월초에 IIE 생물학표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5월말 IIE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IIE 뉴캐슬병 표준실험실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양계질병 대표기관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며, 관련 산업에 경제적 효과도 함께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IE의 양계 질병관련 각종 현안 사안 해결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게 되어 있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국제표준실험실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뉴캐슬병 교육훈련, 진단키트, 진단시약, 예방약(백신) 등을 지원하게 되어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에 지원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시약, 예방약 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동물약품업계의 인지도 향상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실험실은 IIE를 대표하여 해당질병 분야에서 국제적인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예방약 생산 등의 기초가 되는 바이러스 등 전세계적인 생물자원 확보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설날 대비 부정불량축산물 특별점검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

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지원 단속반원(4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1개 합동단속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선물용 또는 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취약시간대 축산물 위생 감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행위, 허가(신고)된 영업장소 이외 영업행위, 유통기한 위반조 행위,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 등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영업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을 비롯한 축산물영업장에서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성수기에는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오는 2월 12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

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 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원산지단속은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농관원은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히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우리맛닭’ 종계 3만수로 확대 분양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15년에 걸쳐 복원한 재래닭을 이용하여 만든 믿을 수 있고 맛좋은 토종 ‘우리맛닭’의 종계 분양 신청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다.

신청 종계농장 및 기업체의 현지 실사와 종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농가와 기업체는 기술이전 협약을 맺고 3월부터 종계 분양을 실시한다.

‘우리맛닭’은 우수한 육질과 품질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자가 늘어 올해 종계 분양 수수를 30,000수로 늘렸으며, 최소 분양 수수를 1,000수로 조정하여 7월안에 종계 분양을 마칠 계획이다.

‘우리맛닭’ 보급이 확대되고 사육기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기술이전 협약과 종계 분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사양관리 교육을 분양신청농가와 지방농촌 지도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2012년까지 종계 공급물량을 6만수까지 늘려 국내 토종닭 수요량의 10%인 600만수 정도를 「우리맛닭」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난육겸용 토종닭, 예쁜 닭 등 전략상품 개발 후속

종계육성에도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031)290-1777
가금과 (041)580-67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0’ 발표대회 성황리에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지난 1월 21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등 농업계인사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10’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오세익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농식품산업 선재적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앞으로 우리 농식품 분야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방향이고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전망대회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녹색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희망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농업생산액은 39조3천220억원으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축산업 생산액은 15조4천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가 증가해 농업 생산액의 39.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축산업을 제외하고 쌀을 포함한 재배업은 23조8천620억으로 전년대비 2.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우유가 쌀로부터 제 1식량의 지위를 넘겨받을 전망이다.

금년도 쌀과 우유의 1인당 소비량은 각각 73.1kg과 62.9kg으로 쌀이 10kg가량 많지만 2015년에는 68.1~67.7kg과 67.8kg으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20년에는 쌀은 61.7~61.4kg으로 줄어 들고 우유는 71.7kg으로 늘어나 제 1식량의 지위가 우유로 넘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업이 이처럼 농업 생산액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력제, 한우전문식당 증가 등에 따른 한우 수요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한 한우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도 한·육우 사육두수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280만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지가격도 520만원(한우수소 600kg)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업이 이처럼 농업 생산액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력제, 한우전 문식당 증가 등에 따른 한우 수요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한 한우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도 한·육우 사육두수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280만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지가격도 520만원(한우수소 600kg)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돼지 역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지만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4천315원(1kg당)으로 예상된다.

육계 사육수수는 작년 가격 상승에 따른 종계수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5% 증가한 7천686만마리, 산지가격은 작년 대비 9.6% 하락한 생체 kg당 1천748원으로 전망했다.

또 산란계는 사육수수 감소로 인해 공급량은 감소하지만 수요는 증가해 가격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HACCP기준원

식육판매업소 HACCP 활성화 간담회 개최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1월 14일 기준원 회의실에서 식육판매업소 HACCP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황인진 사무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영주 이사, 현대백화점 이현상 부장 외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13개 업체 등 총 22명이 참석했으며, 식육판매업 HACCP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유



동업체와 소비자 단체를 통한 HACCP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축산물HACCP기준원의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이번 식육판매업 간담회를 계기로 유통업체와 소비자단체가 앞장서서 HACCP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식탁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기관명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이재용)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기관명을 변경,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이 변경되고, 사업 범위도 축산물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추가되며, 축산물등급판정사에 대한 호칭도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단위 ‘지역본부’의 명칭도 ‘지원’으로 개칭되며, 본원의 ‘등급사업본부’를 ‘평가사업본부’로 변경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989년 설립 초기에는 소·돼지의 등급판정 업무만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공정거래 가격지표 제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으며, 등급판정 결과를 기초로 한 고급육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쇠고기이력제사업,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 결과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축산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내 축산물 유통분야의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다시 출발하여 사명을 다하고자 전직원이 다짐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개발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분야의 유일한 준정부기관으로서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경제에 맞게 소·돼지 등급판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등급판정 품목도 확대하여 오리고기 및 말고기의 등급판정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완전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에게도 국내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알 권리를 제공하여 고객서비스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집단급식소 재해사례 101’ 발간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후원으로 집단급식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단급식소 재해사례 101’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집단급식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집단급식소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사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발생형태에 따른 집단급식소 재해사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급식소의 주요 위험과 대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전국 집단급식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집단급식소 재해사례 101’에 수록된 사례들은 영양사를 통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재해사례를 발생형태에 따라 13종으로 분류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의 감수를 거쳐 재해발생내용과 예방대책 및 관련 사진을 수록하여 영양사가 급식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사례집은 (사)대한영양사협회 중앙회와 전국 13개 지회를 통해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에게 배워 될 계획이다. 

인사소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년 1월 28일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하영호